

Save Me!



# 은행저축 프로젝트

SAVINGS BANK SAVING AIR

수십 년 미세먼지와 싸우며 맑은 공기를 만들어 왔지만

고약한 냄새 때문에 베일 위기에 처한 은행나무들

그 맑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SBI 저축은행이 은행을 저축합니다

※2018년 10월 송파구의 은행나무 암나무들은 베이는 대신 꼭 필요한 곳으로 이식되어 계속 맑은 공기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 희망을 저축합니다 SBI 저축은행

희망+ Autumn 2018

#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Autumn 2018 Vol. 19



### SBI 포커스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 몽골 봉사활동  
SBI저축은행 은행저축 프로젝트

### 부서 탐방

SBI저축은행 정보보호팀

### 달콤한 나의 가족

리테일콜렉션부 권용진 주임과  
예비 신부의 서울 남산 나들이

SBI 저축은행



#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Autumn 2018 Vol.19

26



- 04 **커버스토리**  
SBI저축은행 대전지점 이동일 지점장
- 08 **SBI 포커스 01**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 몽골 봉사활동
- 14 **SBI 포커스 02**  
SBI저축은행 은행저축 프로젝트
- 18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감사부 김정훈 과장 외 8명
- 22 **부서 탐방**  
정보보호팀
- 26 **우리 동호회 최고!**  
SBI저축은행 '유기견사랑회'
- 30 **SBI 희망뉴스**  
2018년 3분기 주요 소식
- 34 **달콤한 나의 가족**  
리테일콜렉션부 권용진 주임과 예비 신부의 서울 남산 나들이
- 40 **힐링 갤러리**  
가을을 남기고 간 영화 속 여인
- 44 **이 상품 어때요?**  
SBI스페셜 정기예금




04



Autumn 2018 Vol.19

<희망+>는 웹진과 함께 펴내는 SBI저축은행 계간 매거진입니다.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863호(2018. 10. 8. 이)

**발행일** 2018년 10월 8일  
**발행인** 임진구, 정진문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담당** SBI저축은행 홍보부 유형근 사원 Tel. 02-3416-4210  
**기획·편집·디자인** 101디자인스튜디오 Tel. 02-548-5780

 <희망+> 웹진  
<http://sbiwebzine.co.kr>



08

22



34





# 즐거로운 지점장 생활

## SBI저축은행 대전지점 이동일 지점장

2009년 3월 입사. 야구 명문 배명고 출신으로 1997년 프로야구 쌍방울 레이더스에 입단해 1군에서 활약한 바 있는 대한민국 0.001% 경험의 소유자. 입단 당시에는 포수였으나 타고난 강건으로 투수 전향을 권유받고 화려한 비상을 꿈꾸던 도중 뜻밖의 부상으로 선수생활 중단. 대학 시절을 보낸 제주도에 내려가 갖은 노력 끝에 지역은행에 입사해 제2의 인생 시작. 결혼 후 충북 청주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내와 떨어져 살기 싫어 아내 회사 근처에 있는 SBI저축은행 진천본점으로 이적을 시도한 로맨티스트. 타고난 성실성을 바탕으로 2014년 지점장으로 승진해 첫 부임지인 전주지점을 전국 1등 지점으로 이끈 클러치 히터. 이번 가을 표지모델은 바로 그 이동일 지점장이다.

※ 클러치 히터  
야구에서 득점 기회가 생겼을 때 안타를 치는 찬스에 강한 타자



## 건강진 보안요원?

SBI저축은행 전국 지점 가운데 고객 컴플레인 가장 적거나 빨리 해결되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동일 지점장이 있는 대전지점이 아닐까 싶다. 어느 지점이든 조금은 억지스러운 이유로 창구를 시끄럽게 하는 고객은 있게 마련. 대전지점에서는 그럴 때 이동일 지점장이 쓱 다가가서 한마디를 정중하게 건넨다. “고객님, 무슨 일로 그러시죠?” 멀리서도 한눈에 확 띄는 커다란 덩치. 딱 봐도 힘깨나 쓸 것 같은 그의 존재를 두고 어떤 고객은 웃지 못할 질문을 던진 적도 있다. “보안요원이 왜 제일 안쪽 자리에 앉아 있나요?”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씩씩하고 솔직하고 활달한 의리의 사나이. 영화계에 김보성이 있다면 SBI저축은행에는 이동일이 있다.



# 천하무적 지점장, 위풍당당 이리맨

거울을 보면  
딱 드는 생각은?  
좀 잘생기지 ㅍㅍ

신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튼튼한 허벅지

나의  
인생 영화는?  
글래디에이터

나의 인생 음악  
(노래)는?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다 잘 먹음

내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아: 이등은 싫어요  
동: 동일이네요  
알: 알등하고 싫어요!

과우명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1억이  
생긴다면?

매달 천만원씩  
아내에게 주면  
10개월은 행복하게  
살수 있겠죠?

학교 다닐 때  
별명은?

공갈포

인생의  
멘토가 있다면?

김성근 감독님

최근에 가장  
기쁜 일은?

딸이 반장되고  
아들이 100점 맞아 왔을 때

가장 좋아하는  
술은? 주량은?

소주 2병

가장 아끼는  
물건은?

사진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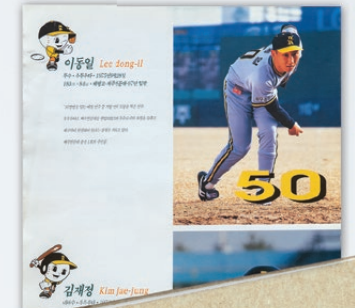


## 내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

1997년 당시 프로야구 1군 선수가 된다는 것은 인구 비율로 계산했을 때 사법고시 합격보다 더 어려웠던 일. 이 엄청난 일을 해낸 바 있는 이동원 지점장에게도 2000년에 시작한 은행원 생활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이왕 시작한 새 인생, 나도 언젠가는 꼭 한번 지점장이 되어 보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어요. 2014년 처음 지점장으로 발령받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97년 쌍방울 레이더스 입단과 2014년 지점장 발령 중에서는 어떤 일이 더 그를 기쁘게 했을까? “두 가지 모두 저에게는 잊지 못할 기쁜 순간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야구선수가 아니라 저축은행 지점장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의 기억은 오늘처럼 이렇게 한번쯤 추억해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제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 쓰레기 더미에 피어난 희망의 새싹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 몽골 봉사활동



끝없는 고원과 사막을 지나면 나타나는 유목민의 흔적이 서린 대지. 불이면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겨울이면 온 들판과 바위산이 눈에 뒤덮이는 곳. 해발 1,300미터 고지에 위치한 울란바토르는 거칠고 척박하지만 몽골에서 가장 큰 도시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한없이 평화롭고 깨끗할 것 같지만 실제 사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울란바토르 중심에서 10km 떨어진 비양조르구 마을에 가면 커다란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일명 '쓰레기마을'이라고도 일컫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쓰레기를 주워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은 어디 있는 것일까?



## 너희도 자라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형성된 빈민촌인 비양조르구 마을. 이곳 쓰레기 더미 속에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저축해주기 위해 SBI저축은행 글로벌 원정대원들이 하늘을 날아왔다.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 간의 일정. 글로벌 원정대원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이 아이들이 자라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밝은 웃음을 건넸다. “새옹배노!”(안녕!)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는 SBI홀딩스의 공익재단인 SBI어린이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한국구세군이 연계해 지난 여름에 출범한 글로벌 봉사단. SBI저축은행 임직원 500여명 가운데 글로벌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 중 20명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했다. 여기에 KBS <다큐세상> 제작팀과 배우 정유미·장기용 씨 등이 함께 참여해 총 40여 명이 봉사활동에 나섰다.





### 희망의 씨앗이 필요한 곳 어디든 날아갑니다

글로벌 원정대는 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물을 보수하고 집집마다 물통을 기증했다. 마을이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알록달록 벽화도 그리고 예쁜 꽃도 심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도 함께 나눴다. 이와 함께 몽골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 마술, 비누방울 놀이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진행하고 아이들과 미니운동회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SBI저축은행은 앞으로도 해마다 한 곳씩 해외 봉사를 갈 예정이다. 희망의 씨앗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희망을 저축하려 간다.

### 청담지점 정세리 사원



〇〇

어릴 적 TV에서 우연히 한국국제협력단이 네팔 오지마을에 가서 학교를 세우는 프로그램을 본 뒤로 소외된 지구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해외봉사가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장인에게 해외 봉사활동은 여러 모로 제약이 많아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으나, 이번에 글로벌원정대라는 좋은 기회가 와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쓰레기더미에서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처음엔 안타깝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3일간 가까이 지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제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얘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돌아왔습니다.

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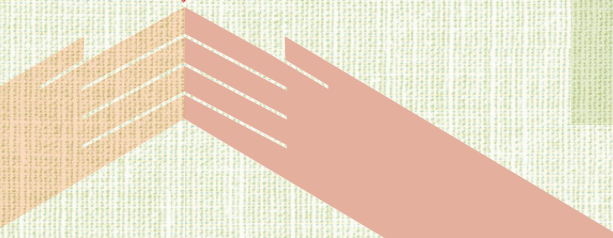
### 기업금융2부 권기종 사원



〇〇

쓰레기마을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마실 물은 부족하고, 심지어 물통조차 모자라 기름통을 식수통으로 재활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과 반대로 아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웃고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아이들은 힘든 활동 와중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이번 봉사활동이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떠난 봉사활동이었지만, 오히려 몽골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〇〇





2018년 7~8월초



한국구세군과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원정대원 모집 및 선발,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 공식 출범

2018년 8월



글로벌 원정대원 사전교육, 문화행사 준비

2018년 8월 23~29일



몽골 비양조르그 쓰레기 매립지 마을에서 현지 봉사활동



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  
몽골로의 여정

2018년 9월 28일



KBS1 TV <다큐세상> 프로그램에서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 몽골 봉사활동 소개

2018년 9월 19일~21일



'희망을 저축하다 몽골' 사진전 개최  
(서울 본사 9층 접견장, 11층 교육장)





Save Me!



Focus 02



# 특명! 은행나무 구출 대작전

SBI저축은행 은행저축 프로젝트

수십 년 미세먼지와 싸우며 맑은 공기를 만들어왔지만 가을이면 고약한 냄새 때문에  
베어질 위기에 처한 도시의 은행나무. SBI저축은행이 바로 이런 은행나무를 살리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름 하여 은행저축 프로젝트!

가을이 되면 예쁜 노란색으로 도시를 물들이는 은행나무.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지구상에 얼마 없는 멸종 위기 종이기도 하다. 어떤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강한 체질에, 사사사철 미세먼지와 싸우는 은행나무 덕분에 우리는 그나마 그동안 덜 나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은행 암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밟아서 발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냄새를 맡아본 사람이라면 '은행나무들이 모두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이렇게 열매의 악취 때문에 나무를 베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은행저축 프로젝트'는 바로 이렇게 베어질 위기에 처한 은행 암나무들을 완전히 베어내 버리는 대신 다른 곳으로 옮겨 살려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생명 사랑 프로젝트이다.



나한테서 X냄새가 난다고?







은행이  
은행을 구한다!



은행저축 프로젝트는 '은행이 은행을 구한다!'라는 독특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생명존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취지로 SBI저축은행과 송파구청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 지역. 이곳의 은행나무들은 고속도로나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에 다시 심어진다. 송파구에 있는 은행나무를 껴안고 사진을 찍은 뒤 인스타그램에 #은행저축프로젝트를 달고 올리면 사진당 100원이 기부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이 기부금은 베어질 위기에 처한 은행나무들을 다른 곳으로 무사히 이주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생명 사랑  
의미를 담은  
설치미술전

SBI저축은행은 은행나무를 옮겨 심는 기간 동안 은행나무가 밀집한 송파구 몽촌토성역 1번 출구 주변에서 한국, 영국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설치미술 전시회도 열었다. 9월 15일(토)부터 10월 7일(일)까지 영국의 유명 아티스트 듀오인 'designs in air'가 은행나무에 커다란 아이볼(EYEBALL) 아트 설치물을 달아 시민들이 은행나무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의 유명 설치미술가 '정열'과 패션디자이너 'RIGOOON'이 참여해 은행나무에 표정을 심어주는 은행나무아트워크들도 전시했다.





## 반갑습니다! SBI 새 얼굴

천고마비의 계절, SBI저축은행의 인력 자원도 나날이 풍성해지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말에 가속도를 더해줄  
아홉 명의 믿음직한 경력직 신규 입사자를 소개한다.

- ① 나는 SBI저축은행의 ○○○이 되겠다.
- ② 내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달고 싶은 사람은? 그 까닭은?
- ③ 2018년 가을을 맞아 동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다면?



### 감사부 김정훈 과장

- ① 나침반 -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SBI저축은행이라는 큰 배를 더 넓고 새로운 바다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② 감사부 동료들 - 박인찬 상근감사님부터 막내 여유진 씨까지 모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다들 멋진 롤 모델이십니다.
- ③ «내 마음에 물망초»(김낙연 지음, 태영출판사 펴냄) - 이 시집은 저희 아버지께서 펴낸 시집 중 한 권입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꼭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 CSS부 송은용 대리

- 1. 사이다 - 청량감 있는 사이다처럼 업무도 회식도 막힘없이 느낌 있게 하겠습니다!
- 2. 김남열 부장님 - CSS부를 최고의 부서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팀원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닮고 싶습니다.
- 3. «빠 있는 아무 말 대잔치»(신영준·고영성 지음, 로크미디어 펴냄) - 누군가의 아무 말에 골똘히 고민해본 적 있는 분이려면 한번쯤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기업여신심사부 조성준 대리

- 1. 골키퍼 - 심사부의 일원으로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 SBI의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2. 심사부 선배님들 모두 - 하루 빨리 최고의 역량을 지니신 선배님들을 닮아 SBI의 어엿한 한 축이 되고 싶습니다.
- 3.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류쉬안 지음, 다연 펴냄) - 심리학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개선한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 핀테크TFT 김정민 대리

- 1. 반딧불 - 하나하나 모이면 보름달처럼 커다란 빛이 되는 반딧불처럼 또 다른 반딧불인 동료 분들과 함께 SBI저축은행의 커다란 빛을 만드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 2. 이은화 이사님 - 박학다식하시면서도 겸손하신 모습과 탁월한 리더십을 닮고 싶습니다.
- 3. «츠바키 문구점»(오가와 이토 지음, 예담 펴냄) -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가인 주인공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겪는 이야기를 잔잔하고 따뜻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시원한 가을 날씨에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 핀테크TFT 김태우 대리

1. 중간계투 요원 - 핀테크의 역할은 한 기업이 디지털 격변기를 잘 버틸 수 있게 돕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양 접점에서 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돕겠습니다.
2. 이은화 이사님 - 팀원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자유롭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질책보다 격려, 지시보다 경청, 소통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3. <<치슐랭 가이드>>(배달의 민족 지음, 펴냄) -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늘 먹던 프랜차이즈 치킨 말고 아직 맛보지 못한 무궁무진한 치킨의 세계를 접해보셨으면 합니다.

### IT개발부 유재원 대리

1. 인재 -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장 먼저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IT개발부 동료들 - 정신없는 일들이 많은 와중에 큰 문제없이 일을 해나갔던 IT개발부 동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닮고 싶습니다.
3.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하기시노 게이코 지음, 현대문학 펴냄) - 교훈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동화 같지만 현실성도 있는 이 책을 동료 여러분께 추천 드립니다.



### IT운영부 홍우선 대리

1. 징검다리 - IT와 현업, 선배와 후배 사이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2. 이종석 실장님 - 바쁘신 와중에도 직원 한명 한명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소통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3. -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이도우 지음, 시공사 펴냄) - 이유 없이 센치해지는 가을엔 로맨스 소설이 정답이죠!



### IT운영부 이길환 대리

1. 메신저 - 협업이 많은 IT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임직원 및 외주 인력들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 조우철 과장님 - 업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주변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힘든 내색 없이 진행하시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3. <<모모>>(미하엘 엔데 지음, 비룡소 펴냄) -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되지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 IT운영부 임세현 주임

1. 유화제 - 서로 혼합되지 않는 다른 물질이 잘 섞이도록 해주는 유화제와 같이, 부서 또는 직원간의 융화 및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2. 이종석 실장님 - 입사 후 IBM 세미나에서 고객사 사례발표와 회사 소개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실장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처음 살아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적 지음, 마음의숲 펴냄) - 가을날 부담 없이 읽기에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 앞이나 서나 보안 생각! 우리는 SBI 정보 파수꾼

## 정보보호팀

세상이 지식정보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활동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핀테크로 대표되는 IT 기술의 활용은 이제 금융회사의 업무 영역에서 점점 핵심의 자리를 확보해 가고 있다. 이처럼 IT 기술의 활용이 급증하면서 더욱 강조되는 것이 정보보호의 중요성. SBI저축은행에서는 누가 이를 책임지고 있을까?





### 우리 회사의 정보 자산은 우리가 지킨다

정보보호팀은 SBI저축은행 안에서 거의 '막내' 급에 속하는 팀이다. 2016년 12월에 부서가 탄생했으니 아직 두 돌도 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업무의 중요성만큼은 다 큰 성인의 몫을 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 역할이 나날이 늘고 있다. 정보보호팀은 회사의 중요 정보 자산에 대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밀성(Confidentiality)이란 비밀유지를 위해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무결성(Integrity)은 정확한 정보 유지를 위해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인가된 방법으로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가용성(Availability)은 허가된 접근의 경우 적절한 시간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진, 화재, 수해 등에 대비한 전산센터의 물리적 보안, 해킹차단, 정보유출방지, 권한관리, 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법규 및 규정준수 등의 관리적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정보 보호의 개척자라는 마인드로

IT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분야이다 보니 업무에 어려움 적지 않을 듯싶다. 적용되는 영역이 늘어날수록 보안에 신경 써야 할 영역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보보호는 틀에 짜인 정형화된 업무가 아니며, 사고 예방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사례 연구, 교육 참여, 벤치마크 등을 통해 자기 계발을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하죠. 저희 모두 정보보호의 개척자라는 마인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용덕 팀장)

"저희는 IT기술을 주로 다루지만, 팀 내에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팀원들 간의 존중과 배려는 저희가 으뜸이 아닐까 싶어요. 업무상 힘든 점이 생기면 서로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합니다. 팀원들이 힘들어 보일 때는 팀장님의 촌데레 같은 배려가 웃음 짓게 합니다. '밥은 먹고 일하나? 오다가 주웠다.' 하면서 뭔가를 씩 내미세요." (조인철 과장)



디지털 은행, 빅데이터 활용, AI의 등장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정보 보안과 디지털 금융혁신은 금융업계가 접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SBI저축은행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직원들의 높은 보안 의식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과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전 임직원 보안레벨 만렙 찍고, 고객정보를 완벽히 보호해 유출사고가 전무한 SBI저축은행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정보보호팀  
권용덕 팀장



### 우리 팀 식구를 소개합니다

#### 박영록 주임

누군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선가 번쩍 나타나 처리해 주는 우리 부서 해결사

#### 이효선 대리

공사구분 확실한 똑순이! 게다가 웃을 때 보조개가 예쁜 보조개요정!

#### 여우정 사원

업무도 척척! 성격도 털털! 매력도 뽀뽀!



#### 김미선 사원

우리 부서의 귀염둥이 막내! 분위기 메이커! 늘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김진명 대리

인생 만렙? 언더그라운드 래퍼 출신의 반전 매력남! 그리고 마음씨 좋은 새신랑!

#### 권용덕 팀장

평소에는 부처님, 업무에 집중할 때는 매의 눈. 언제나 조용히 티 안 나게 챙겨주시는 그대는 그야말로 촌데레!

#### 조인철 과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떤 질문을 해도 3초 안에 대답하는 척척박사!





#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생명

SBI저축은행 유기견 봉사활동 동호회 '유기견사랑회'

언제부터인가 휴가철이면 유기동물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언론매체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되었지만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과 보호는 그만큼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인이 버린 유기동물의 숫자는 총 51만 7천407마리. 해마다 약 8만 마리 반려동물이 버려진 셈이다.





### 동물 사랑을 실천하는 자발적 모임

“여름 휴가철뿐만이 아닙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과 같이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람이 많은 때에는 늘 유기동물 숫자가 급증해요. 몸집이 너무 커지거나 나이가 들어 병치레를 하는 경우 버리는 주인이 많다고 해요. 통계에 나오는 유기동물 숫자는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 따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유기되는 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SBI저축은행 유기견 봉사활동 동호회 ‘유기견사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여의도지점 정보라 주임이 안타까운 얼굴로 우리나라 유기동물의 실태를 설명했다. 평소 남다른 동물사랑을 펼쳐왔던 정보라 주임은 사내게시판에 유기견 봉사활동 모임을 제안하는 글을 올렸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유기견사랑회’ 동호회가 탄생했다. 유기견보호소에 가서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못 갈 경우 물품을 후원한다.



### 늦여름 태양 아래에서 봉사활동 구슬땀

아직 한여름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9월 초 어느 주말 아침, 유기견사랑회 회원들이 경기도 김포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마을’에 모였다. 케이지 안에 보호되어 있는 유기견들도 이들이 반가운지 멍멍멍 인사하며 연신 꼬리를 흔든다.

“벽돌을 나르고 손에 상처가 나도 힘든 점은 없어요. 저희를 반가워해주는 유기견 아이들이 그저 고마울 뿐이죠.”(목동지점 김수민 주임)

“저는 대형견을 동물병원에 데려다주는 운전 이동봉사를 했어요. 차는 침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치료가 잘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요.”(강남지점 공푸름 주임)

“미용 도중 드라이기 소리에 놀라 뛰쳐나갔던 자두가 잘 돌아와서 기뻐요. 한쪽 눈이 아픈데 열린 치료 받고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인천지점 양원영 주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학대받고 버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요. 사랑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종로지점 김유림 사원)

“혼자서는 하기 힘든 봉사활동을 같이 모여서 하니깐 기쁨도 보람도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강남지점 김영주 사원)  
 “저희는 거창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손길 하나라도 나눠주실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누구든 환영입니다!”(여의도지점 정보라 주임)



여의도지점 정보라 주임  
 전화: 02-2135-4614(내선 12614)  
 이메일: jbr0109368@sbisb.co.kr





**김아림 프로**  
**KLPGA 첫 우승 쾌거**

SBI저축은행 소속 '장타 퀸' 김아림 프로가 KLPGA 투어 첫 번째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김아림 프로는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용인시 88컨트리클럽에서 끝난 2018 시즌 KLPGA 투어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마지막 날 5언더파를 몰아치며 3타차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5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에서 박인비 프로와 명승부를 펼치며 깊은 인상을 심었던 김아림 프로는 이번 대회에서 마침내 정상에 오르며 2018 시즌 '돌풍의 주역'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175cm 큰 키에서 나오는 시원한 장타력으로 드라이버샷 평균 비거리 1위(259.89야드)를 달리고 있는 김아림 프로는 올 시즌 정교한 퍼팅 기술까지 더해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떼고 KLPGA를 대표하는 강자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다.

김아림 프로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물의 온도를 올려왔던 게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2개의 메이저대회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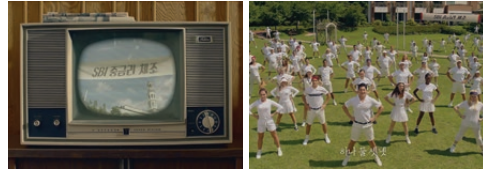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  
**사진 전시회 진행**

봉사활동에 땀 흘리는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9층 접견장과 11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희망을 저축하다 몽골’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지난 8월 몽골 울란바토르 바양조르그 쓰레기매립지 마을에 다녀온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의 모습을 담은 91점의 사진들을 전시했다. 사진전에는 몽골의 풍경과 원정대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모습, 현지 아이들의 생생한 표정이 담긴 인물사진 등이 전시되어 내부 임직원은 물론 내방 고객에게도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는 SBI홀딩스의 공익재단인 SBI어린이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한국구세군이 연계해 출범한 봉사단. SBI저축은행 임직원 20여 명과 KBS <다큐 세상> 제작팀, 배우 정유미·장기용 씨 등 40여명의 원정대가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간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새 TV CF  
'대한민국 중금리' 편 론칭**

SBI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 상품인 'SBI중금리비발론'의 새로운 TV광고를 론칭했다. 치열한 중금리 시장 경쟁 상황에서 'SBI'라는 믿음직하고 익숙한 브랜드를 강조한 이번 TV광고는 9월 22일부터 TV 전파를 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TV광고는 대세가 되면 붙게 되는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활용해, 'SBI 중금리 이제 국민 중금리로!'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국민 중금리 체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학교와 각 기간에서 30년 넘게 쓰이는 국민체조 노래를 CM송으로 활용하여 낯선 금융 용어를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게 하였다. 그동안 여타 대출광고와 차별화된 소재와 표현기법을 통해 완성도와 참신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SBI저축은행은 이번 신규 TV광고를 통해 중금리 시장에서 더욱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 만족경영 실천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SBI저축은행이 소비자 만족경영 실천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모든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체 금융사 중에서 SBI저축은행을 포함한 8개사만이 이룬 성과다. SBI저축은행은 금융 취약 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지원을 위해 고객중심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지점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해 교육하고 있다. 또 신체적 장애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 받는 일이 없도록 전용 ARS시스템, 점자 상품설명서 비치, 점자 블록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의견 검토·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금융사고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AI·블록체인 전문기업  
(주)데일리인텔리전스와 MOU 체결**

SBI저축은행은 9월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인공지능(AI)·블록체인 전문기업인 (주)데일리인텔리전스와 핀테크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SBI저축은행은 (주)데일리인텔리전스의 업무 제휴를 통해 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데일리인텔리전스는 일대일 인터랙티브 마케팅 채널인 다빈치봇, 머신러닝 솔루션인 다빈치랩스, 라잇블록체인 루프체인 등을 개발하고 운영중인 핀테크 전문기업으로 현재 국내 금융사들의 기술 파트너 역할뿐만 아니라 일본 금융사를 대상으로도 각종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FY18기 주임, 사원급  
리더십 역량과정 연수**

SBI저축은행이 주임·사원급 직원들 대상으로 리더십역량 향상 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주임급 직원 44명과 사원급 직원 69명 등 총 113명의 직원이 참석한다. 지난 9월 10~11일(주임), 10월 11~12일(사원 1차), 10월 18~19일(사원 2차) 등 총 세 차례로 나누어 서울 중구 통일로 바비엡2에서 진행되는 주임, 사원급 리더십역량과정은 조직의 리더십 역량을 높이고 성과관리 및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참가자들은 이번 연수에서 리스크 관리, 조직 관리, 법규 및 사례 연구, 액션 플랜 등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된 총 16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각 직급별로 해당하는 필수역량 학습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업무 몰입도를 증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비가 와도 괜찮아 너와 같이 걷는다면

리테일컬렉션부 권용진 주임과 예비 신부의 서울 남산 나들이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남산, 저 멀리 계단 아래에서 우산 하나를 나눠 쓴 커플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보름 남짓 후면 정식 부부가 될 사이인 리테일컬렉션부 권용진 주임과 예비 신부 김민영 씨가 바로 그 주인공. 결혼 전 마지막 데이트를 뜻 깊게 보내고 싶던 차에, 마침 사보 이벤트에 당첨된 덕분에 그동안 둘이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남산에 올 기회가 생겼다.





### 삼겹살 식당에서 시작된 인연

이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은 '예비 신랑' '예비 신부'였다. 가을호 사보가 발행되기 직전인 10월 3일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이제는 남편과 아내라고 해야 맞겠다. 하지만 이번 사보에서는 두 사람이 데이트하던 날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보자는 취지로, 그리고 두 사람이 처녀총각 시절 마지막 데이트를 영원히 기억했으면 하는 뜻으로 '예비 신랑' '예비 신부'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한다.

2015년 1월에 입사한 권용진 주임은 그동안 쪽 SBI저축은행 리테일콜렉션을 선부에서 근무했다. 사내 야구 동호회에서는 포수로도 활약 중이다.

“올해 초 이른 봄날, 강남역 부근의 삼겹살 식당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소주 한잔과 삼겹살을 배 터지게 먹던 도중 건너편 테이블에 있는 어여쁜 그녀를 처음 보게 되었죠. 무언에 홀린 듯 다가갈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베이커리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주 한번 끝내준다. 삼겹살 식당에서 처음 만나서 결혼할 확률도 매우



봄이 오기 전 어느 날,  
강남역 부근의 삼겹살 식당에서  
어여쁜 그녀를 처음 보게 되었죠.  
무언에 홀린 듯 다가갈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희박한데, 봄에 만나서 그 해 가을에 바로 결혼할 확률까지 곱한다면 그야말로 보기 드문 결혼 스토리를 지닌 커플이다. 술보다 커피를 좋아해 하루 세 잔 넘게 마시는 '커피 중독자' 남자와 바리스타로 일하는 여자. 두 사람은 한마디로 '인연'이었다.

### 가을엔 남산길을 걷겠어요

짧은 연애기간 탓인지 두 사람은 오늘 남산 데이트가 처음이라고 한다. 보슬보슬 비가 오니 오히려 호젓한 분위기가 나서 과히 싫지만은 않다.

막상 서울에 살아도 남산에 안 가봤다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남산이 오늘날처럼 산책하기 좋은 차량통제구역으로 바뀐지는 10년이 조금 넘었다. 2005년 봄, 정상까지 이어지는 남쪽 순환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도로를 따라 흙물처럼 남산을 가로질렀던 철조망도 없었다. 이에 따라 남산에 사는

소나무 등 식물의 숨통이 트이고, 다람쥐·청설모 같은 포유동물과 소쩍새·핑·박새 같은 새의 이동도 편해졌다. 차량을 통제할 대신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천연가스(CNG) 버스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했다. 이미 1991년부터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국립극장에서 소파길까지의 북쪽 순환도로와 함께 남산이 산책과 조깅의 명소로 서울시민에게 돌아간 것이다. 남산을 상징하는 것을 두 가지만 꼽자면 단연 N서울타워와 케이블카가 아닐까 싶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 5월 12일 개통됐다. 서울 중구 회현동과 예장동 사이에 놓인 남산 케이블카는 선로 길이 605m, 고저(높낮이) 차 138m다. 남산 케이블카는 개통 당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케이블카를 타려면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고, '서울 가서 남산 케이블카 타보는 것'이 시골 어린이들의 꿈이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남산 케이블카의 승객도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 남산의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권용진 주임은 예비신부 김민영 씨의 어떤 면을 보고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까?

“예쁜 얼굴과 몸매죠. 하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리도 잘하고 여성스러운 그녀는 사람 자체로 매력 덩어리예요.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어느 날 저를 위해 차려준 밥상이 결정적이었어요. 저를 위해 손수 식사를 준비했다고 해서 가 보니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진수성찬이었어요. 일주일 5영업일 중 3~4영업일은 오로지 제육볶음 하나로만 점심식사를 하는 저에게 다양한 반찬을 먹는다는 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집에 계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늘 집밥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어요. 이런 여자를 놓치면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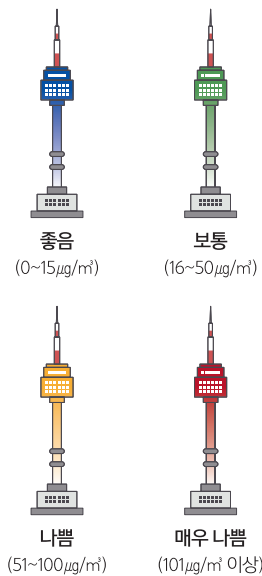
산책길 데이트 후 두 사람은 360도 회전하는 것으로 유명한 N서울타워 ‘엔그릴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즐겼다. 권용진 주임은 한우 채끝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예비신부 김민영 씨는 랍스타를 메인으로 하는 코스요리를 주문했다. 이 요리들은 1시간 40분~2시간이 걸리는 코스요리로, 식사를 하면서 360도 바깥 경치를 충분히 감상하라는 레스토랑 측의 의도가 담겨 있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두 사람의 손가락에서 나란히 반짝이는 커플링. 아, 인생은 눈부셔라!



### N서울타워에 오르는 3가지 방법

- ❶ 걷기  
N서울타워는 승용차로 갈 수 없다. 선선한 가을날 남산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튼튼한 두 다리를 이용하는 것. 남산서울타워보다 비교적 한적한 2곳의 전망대에도 들러보자.
- ❷ 버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4호선 명동역 4번출구, 4호선 충무로역 4번출구에서 남산 순환버스 02, 03, 05번 탑승.
- ❸ 케이블카  
지하철 4호선 명동역 4번출구에서 도보 15분 후 케이블카 탑승장 이용. 왕복요금 대인 8천 500원 / 어린이(36개월~초등학교) 5천 500원, 편도 대인 6천원 / 어린이 3천 500원.

### N서울타워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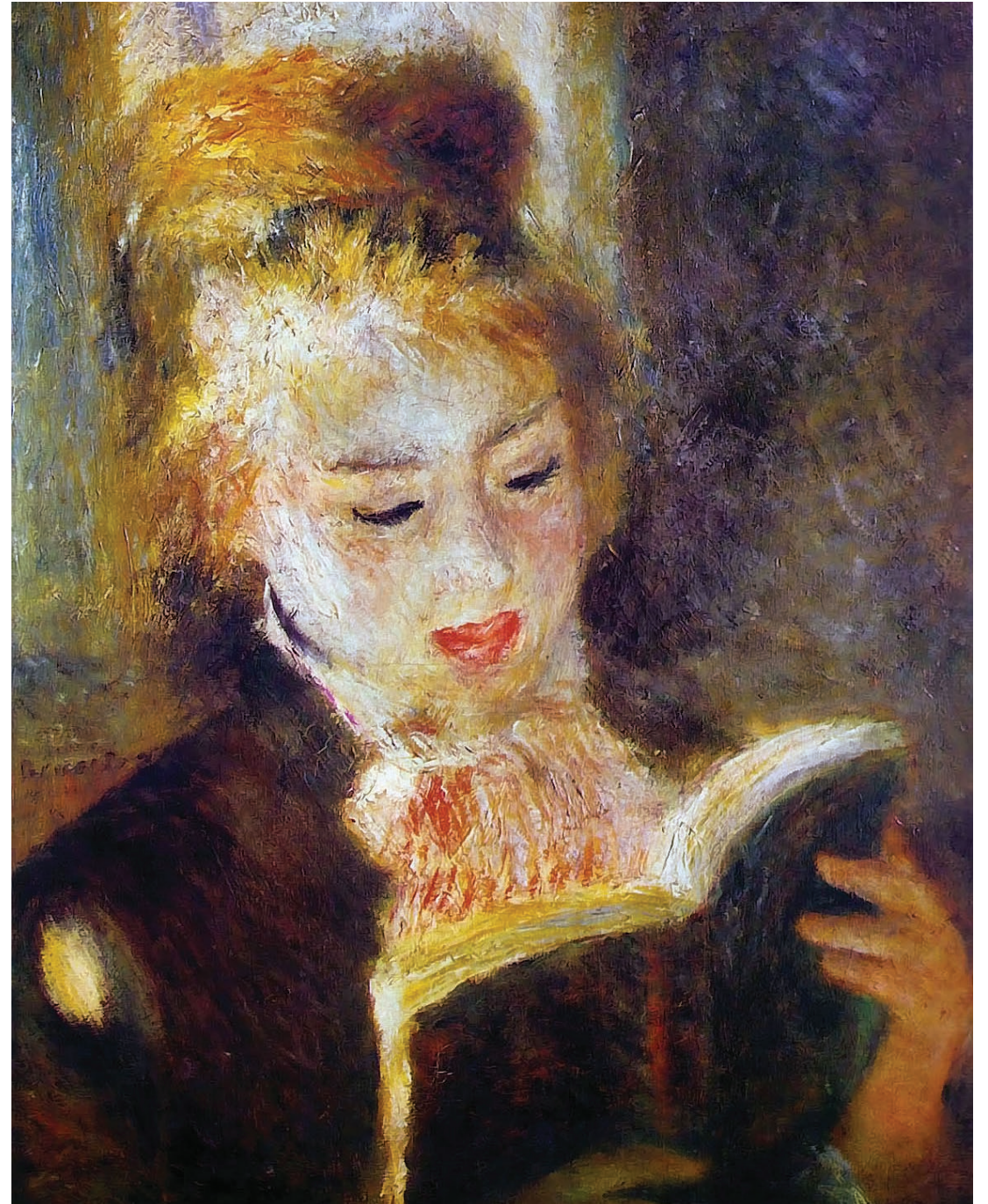




# 가을을 남기고 간 명화속 여인

창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책  
읽기에 푹 빠진 젊은 여인.  
책에서 반사되는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여인의  
얼굴에서는 생명력이 넘치며,  
머리는 마치 스스로 빛을 뿜는  
것처럼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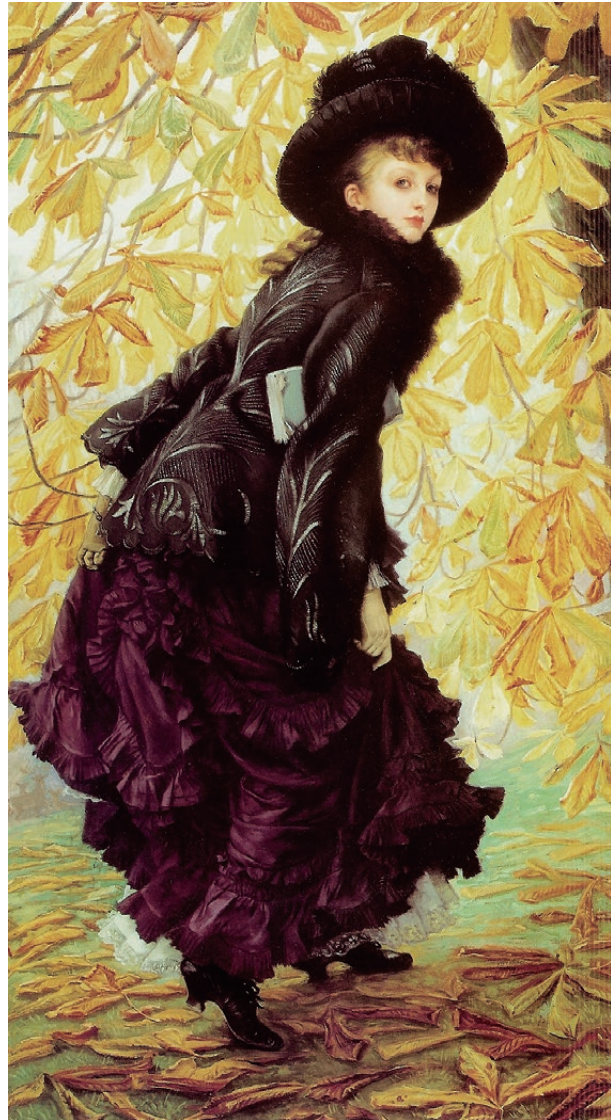
르누아르는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과는 달리 자연의  
묘사보다는 인물, 특히 여인을 주제로 빛의 효과를 탐구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 이 그림의 모델은 파리 몽마르트의  
화류계 여성 마르고(Margot)인데, 그녀는 르누아르의 다른  
작품 <춤추는 소녀>의 모델이기도 하다. 청소와 심부름 등  
닥치는 대로 일하던 소녀가 어려운 환경에도 틈틈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모델로 청했다고 한다.  
가난한 양복점 집안에서 자란 르누아르는 삶이  
우울하더라도 그림은 아름답고 밝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3세 때 정식 미술교육을 받는 대신 공장에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수습공으로 일했던 그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자주 드나들며 대기들의 작품을 보고 화가의 꿈을  
키워 나갔다. 르누아르는 말년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손이  
떨리게 되자 형겅으로 손을 고정하면서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 나갔다. 그는 아픈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림이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책 읽는 여인>  
1874~1876, 캔버스에 유채, 46.5×38.5cm, 파리 오르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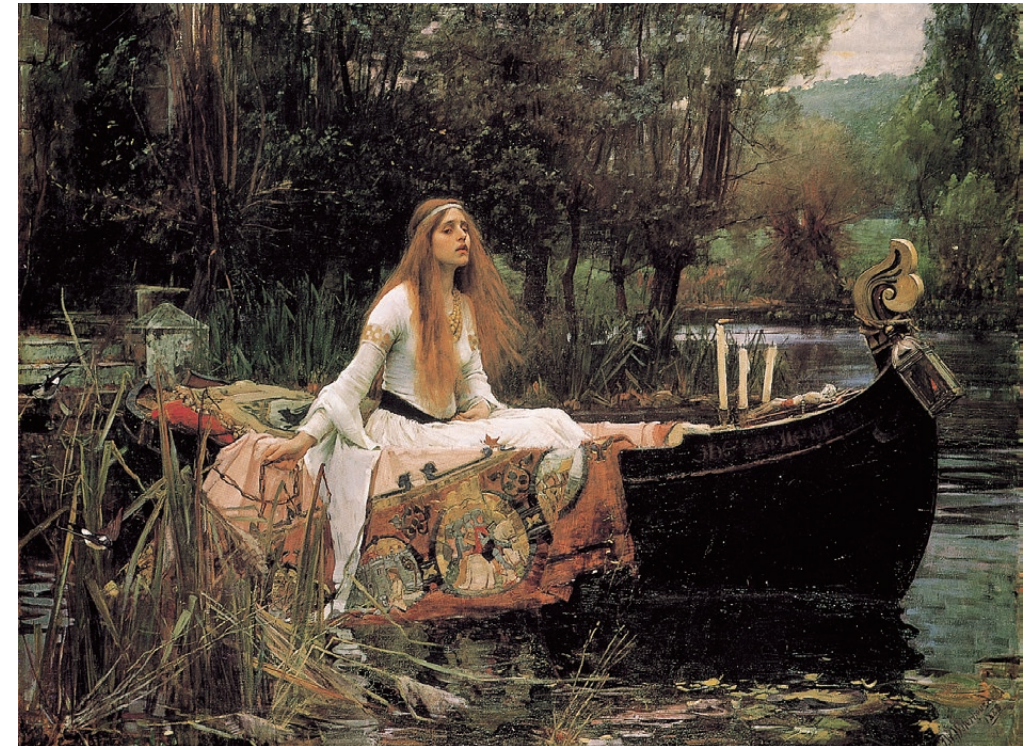
가을의 애상미가 넘치는 풍경 속에서 화가 티소의 연인 캐슬린이 가랑잎을 밟으며 은밀한 숲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비밀스러운 걸음걸이나 뒤돌아보는 표정이 사뭇 유혹적이다.



티소 <10월>  
1877, 캔버스에 유채, 216×108.7cm, 몬트리올 미술관

영국에서 오래 활동한 프랑스 화가 티소는 이 여인을 모델로 자주 그림을 그렸다. 여인의 직업 자체가 모델이었던 까닭도 있지만, 티소와 동거한 실제 연인 사이였다는 것이 더 큰 까닭이다. 티소는 이 아일랜드 출신 아가씨를 만난 뒤 프랑스인다운 감각으로 그녀의 패션을 확 바꿔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생아가 돌씩이나 있는 이혼녀였던 이 여성과 동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티소를 굽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에게 초상화 제작을 의뢰하던 사교계 사람들도 하나같이 그를 피했다. 왕립 아카데미의 연례 전시에도 스스로 출품을 포기할 만큼 당시 티소가 느꼈던 소외의 충격은 컸다. 그럼에도 티소는 주위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캐슬린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며 아름답게 그렸다. 비극은, 티소의 그 뜨거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캐슬린이 2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이 그림은 마치 그녀가 그에게 작별을 고하는 그림 같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레이디 샬롯>  
1888, 캔버스에 유채, 153×200cm, 런던 테이트 갤러리

흰옷을 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배에 몸을 싣고 정처 없이 어디론가 흘러간다. 웬지 현실이 아니라 꿈속의 풍경인 것만 같다.

이 그림은 아더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한 테니슨의 시에 뿌리를 둔 그림이다. 그림의 주인공은 자신을 가두려는 운명의 힘에 결연히 저항한 여인이다. 레이디 샬롯은 어두운 탑 안에 갇혀 세상을 거울로만 보도록 허락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오랜 세월 그 운명에 묵묵히 순종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에 씩씩하고 잘생긴 원탁의 기사 랜슬렛 경이 비친 순간 그녀는 뜨거운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거울은 그렇게 깨져버렸고, 그녀는 랜슬렛 경이 있는 카멜롯으로 배를 타고 정처없이 흘러갔다. 며칠 뒤 배가 카멜롯에 이르렀을 때 원탁의 기사들이 본 것은 그 배안에 자는 듯이 누워 있는 레이디 샬롯의 아름다운 주검이었다고 한다.





3%

3%

3%

3%

3%

3%

3%

3%

3%

## 이거 레알? 연 3%대 정기예금 시대!

### SBI스페셜 정기예금

“지금까지 제가 본 가장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지난여름 서울의 한 SBI저축은행 지점에서 만난 고객의 말이다. 고객의 눈과 경험은 정확하다. 고객이 요구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 SBI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인 ‘SBI스페셜 정기예금’이 국내에 출시된 수많은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기회는 불잡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던가. 3년 뒤에 거둬들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며 이제부터 차근차근 씨앗을 뿌려보자.



### SBI스페셜 정기예금

- ① 가입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비대면 계좌 개설 시 개인만 가입 가능)
  - ② 가입 방법: 영업점/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SB특독(비대면)을 통해 가입
  - ③ 가입 금액: 10만원 이상~제한 없음
  - ④ 가입 기간: 36개월
  - ⑤ 이자 지급 방식: 월 지급식
  - ⑥ 금리운영 방법: 고정금리
  - ⑦ 적용 금리: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SB특독(비대면)으로 가입할 경우 연 0.1% 추가 우대 적용

#### 중도해지 이자율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연 0.2%	연 1.0%	가입 당시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

#### 만기 후 이자율

구분	만기 후 1개월 미만	만기 후 1개월 이상
창구 가입 상품	연 1.0%	보통예금 이자율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SB특독(비대면) 가입 상품	보통예금 이자율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 금리,  
타 저축은행 평균보다 0.53% 높아



12개월 지나 중도 해지해도  
정상이자 지급

SBI스페셜 정기예금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SBI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3년(36개월), 기본 이율은 3.0%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가장 금리가 높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할 경우 0.1%의 우대금리까지 적용된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한 국내 저축은행들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2.57% (2018년 5월 8일 기준) 대비 0.53% 높은 수준이다.

‘연 3%대 금리’라고 하면 얼핏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으로 계산해 보자. 국내 저축은행의 금리 평균에 가까운 2.6%의 이율과 3% 금리는 과연 이자 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 3년간 3천만 원을 예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205만원 (2.6%) 대 247만원(3%)으로 무려 4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게다가 SBI스페셜 정기예금은 상품 가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도 해지해도 가입 당시 12개월 정기예금의 정상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만하면 가입하지 않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2019.2.28 까지)  
하였습니다



## 신청대상

- 2017.10.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재산 조사 후 채권소각  
※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 채무자는 상환  
능력이 있거나 장기소액연체가 아닌 경우에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18.9.3 ~ 2019.2.28 (6개월)



## 신청방법

- ▶ 전화상담 | 1588-3570 또는 1397
- ▶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http://www.oncredit.or.kr))
-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 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위쪽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12월 14일(금)까지 홍보부 유형근 사원([koomtle@sbisb.co.kr](mailto:koomtle@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